

# Journey to Sincere Friendship Led by Art

## A Thought on the Asian Art Network within Us

Ko, Young Jik

Literary critic

### ‘How’ did Asia Meet Each Other?

There is a saying, ‘The bird a nest, the spider a web, man friendship’. An aphorism by W. Blake, an English poet. These words compress into a simple and clear slogan the point that human beings cannot live by themselves without the help of others. Friendship! One can say that around the world, the value of its virtue has never been doubted throughout history.

In his recent prose book *Land's Protection*, KIM, Jong Cheol, the publisher of *Green Review* asserts in his book that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is world is not health but friendship, that is to say, the relation between

people and people. He says that, in short, the Chinese Dadong(大同) ideology and the gospel ideology of the Christ also mean ‘eating together’. It means that the act of ‘eating together’ is an expression of joining of very special friendships in our lives. And in these contexts, no one would deny that the act of eating together referred to in these sentences means the act of meeting each other disinterestedly and sharing meals and drinks.

In such aspects, I think that rather than the occasion when we meet, the relationship ‘how’ we meet is more important. That is to say, that the manner in which relationships are created is more important. In reality not all our meetings have been meetings of blessings and welcomes, and on the contrary we remember many more cases of meet-

# 예술이 이끄는 진정한 우정의 길

우리 안의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에 대한 단상

## 고영직

문학평론가, 전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대표

### 아시아는 그동안 '어떻게' 만났는가

'새의 보금자리, 거미의 거미줄, 사람의 우정'이라는 말이 있다. 영국 시인 W. 블레이크의 아포리즘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명하게 응축한 슬로건이다. 우정! 동서와 고금을 떠나서 우정이라는 덕목은 한 번도 그 가치를 의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다.

최근에 산문집 <땅의 옹호>를 펴낸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자신의 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도 아니며 '우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단언한다. 그는 중국의 대동(大同) 사상도, 예수의 복음(福音) 사상도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밥 먹어라'(eating together)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같이

밥 먹는다'는 행위는 그렇듯 우리네 삶에서 매우 각별한 우정의 연대라는 것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같이 밥 먹는 행위가 서로 사심 없이 만나 밥과 술을 나누어 먹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언제 만나느냐는 사실보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는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관계 맺기의 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은총과 환대의 만남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많은 경우 저주와 고통의 만남이 된 사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19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가해진 이른바 '서양의 충격' 현상을 보라. 경쟁과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문명이 서양 제국주의의 자기 팽창과 무한 확장을 위한 '정복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ings of curses and pains. For example, look at the phenomenon of the ‘Western Shock’ that hit Asia and Africa in the 19th century. Who can deny that the modern civilizat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competition and rule, was a ‘conquest project’ by the Western imperialism for their self-growth and endless expansion.

The dark scars and pains of the days of real dark historic events such as colonies, wars, divisions, massacres, rapes, and national separations still remain big, wide and deep, not only in our society that talks about post-modernism, but also in the Asian and the African continent. In that sense it was quite meaningful that the theme of the Asia Africa Literature Festival(2007 AALF) held in Jeonju in November 2007 was ‘Amazing Clash’. I believe that the title of the 2007 AALF is an example of expressing the fundamental passion and cultural will to take action in an effort to change our meetings from that of curses to that of friendships where we dine and drink, sing and dance.

I think that this point is provided with a reliable ‘international endorsement’ by the poem *Liquor From The East Of The City* written by CHIM Tr ng(70), a Vietnamese poet and my friend. Poet CHIM Tr ng was a revolutionary fighter turned best poet in Vietnam. I met the poet in a group activity of the ‘Young Korean Writer’s Solidarity for Vietnam’(representative, KO, Myung

2007년 베트남 작가들이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방문했다. 시인 찜짱(가운데)은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통해 한국과 교류하고 있다.

Chim Tr ng(center), a Vietnamese poet when he visited South-North Korea border.

Cheol), which was formed in 1994. “Let’s drink as the long pumpkin drinks with the round pumpkin / Let’s drink so the night is full of happiness!” Expression of such delightful poetic sentiments is the ‘Amazing Clash’. Here is an excellent modern day song of drinks and friendship that compares even to ‘Songs to Offer Wine’(將進酒) of the world class boozier LI Bai(李白). I have no doubt that LI Bai was able to utter the perfect and flawless words, “only those that drink leave their names” only because he also had innumerable memories of such Amazing Clashes.

Would it be downgrading to say that the wind of Asian discourses and Asian cultural art exchanges that have been blowing since more than a decade ago is sort of a ‘favorites linking project’ to restore the value of friendship in today’s reality? Through such meetings, I think we will be able to newly change the meaning of the dark memories that have been engraved in the name of Asia by deepening and spreading the value of communication, sharing, and joining from the basis of Asian experience that has been introduced as



### 경이로운 충돌이 일어났다

식민지, 전쟁, 분단, 학살, 강간, 민족이산 따위와 같은 암울했던 사건들은 역사적 실재(real)다. 그때 그 시절의 어두운 상처와 고통의 흔적은 탈근대를 운운하는 우리 사회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도 여전히 크고, 넓고, 깊게 남아 있다. 2007년 11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2007 AALF)의 주제가 ‘경이로운 충돌’(Amazing Clash)이었다는 점은 그래서 펍 의미심장하다. 나는 2007 AALF의 이 주제에, 우리의 만남이 저주의 만남에서 같이 밥과 술을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우정의 만남으로 위대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열망과 문화적 실천의지가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의 베트남 친구인 째짱(70) 시인이 쓴 <도시 동쪽에서의 술>이라는 시가 확실히 ‘국제보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째짱은 혁명전사 출신의 베트남 최고시인이며, 1994년에 결성된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대표 고명철)이라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시인이다. “긴 호박이 둥근 호박과 함께 마시듯 서로들 마셔보세 / 오늘밤 행복이 가득 넘쳐나도록 마셔들 보세!” 이와 같은 흥겨운 시정(詩情)의 표출이 곧 ‘경이로운 충돌’이 아니겠는가. 천하의 술꾼 이백(李白)의 <장진주>(將進酒)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술과 우정에 대한 현대의 절창이 여기에 있다. “오로지 술 마신 자만 그 이름을 남긴다네”라고 한 이백의 말 역시 수없이 많은 경이로운 충돌의 추억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천의무봉의 어록이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십수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아시아 담론과 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 열풍을 두고, 이렇듯 우정의 가치를 오늘의 현실에 복원하려는 일종의 ‘1촌 맺기 프로젝트’라고 말한다면 격이 떨어지는 것일까. 소통과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심화, 확산하는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16세기에 지리적 개념으로 도입된 아

a geographical concept in the 16th century. As the Chinese female intellect SUN Ge(孫歌) said, in this course of discovery and adventure, we will learn to rid ourselves of the imaginations of modernity and democracy that hold the West as our potential model. Here lies the reason why the Asian artists must make exchange to secure a space for independence and autonomy, unbound by the category system of the 'world standard'.

### **Artistic Examples of Communication, Sharing and Joining**

A Korean philosopher, KIM, Yong Suk defined this era as an 'age of intermixing' in the age of civilization. The concept of consilience, advocated by the biologist Edward Wilson, has become a terminology limelighted in this age of intermixing. It's a far cry from the days when the southern part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was the only 'world' we understood. The fact that back at that time the measure of all the values in our society, including those of literature and art, was the strong native ethos in the name of nationalism and ethnocentrism.

But the world order has changed. The new arrival of globalization, which means encompassing the whole earth and becoming the world at the same time, fundamentally has changed the concept of boundaries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nation-state, and also has demanded from our literature and

artistic fields an aesthetic and ethics that could communicate with different kinds, share values and coexist. Of course, I'm not well informed of the realities of other genres than literature, so I cannot come to a swift conclusion that I accurately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affairs of exchanges in other art genres. However, I think the experiences in diverse art exchanges with various Asian nations are a big help in art development of Korea and various Asian nations that seek the advent of the 'new art'. Through such friendly exchanges of our inner sides, we not only learn how to form relations to understand 'the pain of others', advocated by Susan Sontag, but also know that such experiences lead to a search of knowledge and a common touch which makes respect towards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coexistence possible.

The experience of Asian literature exchange in Korea dates back less than 20 years. What does it mean to imagine Asia in the field of literature? I've participated in the 'Young Korean Writer's Solidarity for Vietnam', and have realized from the experience the truth that literary exchange is 'exchange of inner sides'. In particular, exchanges with the literary men of Vietnam, in which the blood and barbarity of Koreans had permeated, made me really feel why we shouldn't turn our faces away from issues of conditions of life such as peace,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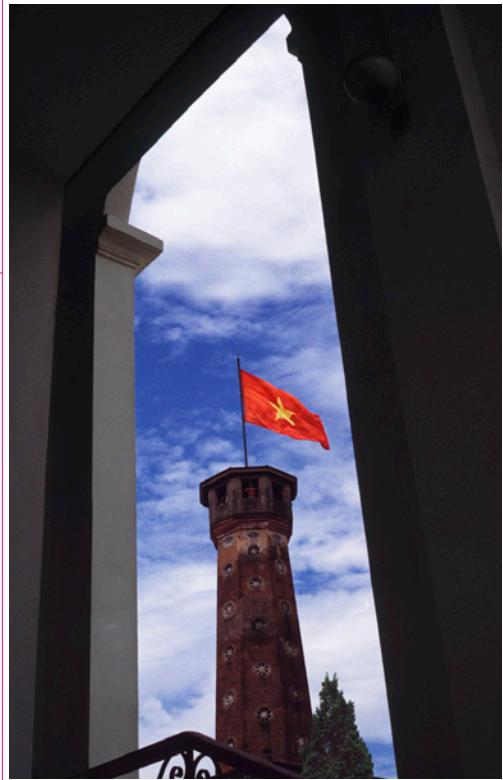
역사가 활취고 간 상처를 예술의 교류가 보듬는다. 사진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시된 사진작가 최경자의 작품.

One of the photographic works exhibited at Hanoi, by Choi Kyeongja, a Korean photographer.

시아라는 명칭에 각인된 어두운 기억을 새롭게 의미전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발견과 모험의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의 여성 지식인 쑨거(孫歌)가 말하듯이, 근대나 민주주의를 상상할 때 서구를 잠재적 모델로 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될 터이다. '세계 표준'이라는 분류체계에 포박되지 않는 자립과 자치의 공간 확보를 위해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교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철학자 김용석은 이 시대를 문명사적 '혼합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제창한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개념도 혼합의 시대에 각광받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는 분단 한반도의 남쪽이 전부였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때 그 시절에,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는 국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이름의 견고한 토착적 에토스(ethos)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다. 전지구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뜻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새로운 도래는 국민국가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우리 문학과 예술 현장에도 이질적인 것들과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미학과 윤리학을 요구했다. 물론 나는 문학을



제외한 타 장르의 실정에 어두운 편이어서 다른 예술 장르의 교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예술교류의 경험은 '새로운 예술'의 출현을 모색하려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예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우정 어린 내면의 교류를 통해서 수잔 손택이 역설하듯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관계 형성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문명 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감각과 지체의 모색으로 나아가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베트남발 문학교류, 아시아 각국으로 물꼬를 트다**  
한국에서 아시아 문학 교류의 경험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문학의 장(場)에서 아시아를 상상한다는 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는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and ecological destruction. In that aspect, Susan Sontag's slogan of 'literature is freedom' was my slogan as well. "Literature was the passport to enter a larger life; that is, the zone of freedom." I could say that I learned that writing that only belongs to one's own native ethos, that is one's own state, nation, race, religion might be, in some sense, a scar and violence to others. In a column I wrote in the *White Book On The 2006 East Asia Joint Activist Groups*, published by the Seonam Forum, I wrote on my experiences of literary exchanges with Vietnam. "Literature does not have the power to build schools in the scarred and insulted land of Vietnam, and it has even less power to build hospitals for war victims. However, literature, in its own

way of exchange of inner sides, creates an important contact point in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scars of the two countries".

In our literary reality, the experience of exchanges with Vietnam expanded to other countries in Asia. The way it expanded took the form of spontaneous spraying to form a small literary gathering with some countries such as Palestine, India, Mongolia, and Burma as its axi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e formed literary gatherings when issues such as the Israel-Palestine civil war, democratization in Burma, war in Iraq,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ibet. Not just that, we saw a drastic increase in literary academic organizations and gatherings with the East Asian bloc and the whole of Asia as its foundation for reasoning and actions.

2006년 베트남 하노이의 '29 홀바이 갤러리'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예술 세미나.  
Korean and Vietnamese artists  
at a seminar on art in Hanoi, 2006.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의 창립부터 줄곧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문학 교류는 ‘내면 교류’라는 점을 경험적 진실로 체득했다. 특히 한국인의 피와 야만이 함께 스며 있는 베트남의 문학인들과의 교류는 나에게 문학이 왜 평화, 빈부격차, 생태계 파괴와 같은 삶의 조건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를 몸소 실감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자유이다’라는 수잔 손택의 슬로건은 나의 슬로건이기도 했다. “문학은 광활한 현실로, 즉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였다.” 자신의 토착적 에토스, 즉 오로지 자신의 국가, 민족, 인종, 종교에만 귀속되는 글쓰기가 어느 측면에서는 타인에게 상처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 서남포럼이 간행한 <2006 동아시아연대운동단체백서>에 나는 베트남과의 문학교류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썼다. “문학은 상처받고 모욕당한 베트남 땅에 학교를 세울 힘도 없으며, 전쟁 피해자를 위한 병원을 건설할 힘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문학은 내면의 교류라는 고유의 방식으로 두 나라의 역사적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의 접점을 형성하게 한다.”

우리 문학 현실에서 베트남과의 교류 경험은 아시아의 또다른 나라들로 더 확장되었다. 그 확장은 자연발생적인 산포(散布)의 방식을 띠며 팔레스타인, 인도, 몽골, 버마와 같은 특정 나라를 축(軸)으로 하는 문학 소모임을 형

성했다. 이-팔 내전, 버마 민주화, 이라크 전쟁, 티베트 독립시위와 같은 이슈가 생기면 문학 연대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가 하면 동아시아 블록 및 아시아 전체를 사유와 행동의 기반으로 하는 문화 학술 단체와 모임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대표 오수연)와 ‘아시아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 김남일 외)는 각각의 사례를 대표하는 소모임이다. 그리고 2006년에 결성된 아시아문화네트워크가 창간한 문예지 <ASIA>는 아시아로 열린 문학의 창(窓)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권 9호를 발간한 <ASIA>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신는 편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교류의 활성화는 2007년 AALF 행사를 비롯해 해마다 크고 작은 교류행사가 수없이 열리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베트남발(發)’ 문학교류의 물꼬가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고 교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작품 번역과 실제 창작물이 나왔다. 문학 교류가 공진화(共進化) 하고 있다고 자평해도 좋을 터이다.

아시아의 예술 교류는 타 장르에서도 매우 활발하다. 베이징 798 예술구로 상징되는 중국 현대미술을 비롯해 대규모 아트페어 등의 이벤트를 통해 시각예술의 교류는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춤, 무용,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계의 교류는 문화의 산업화 시대인 오늘날, 문화상품으로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타 장르에서 일어나는 예술교류의 실상과 의미에 대해 분별하고 논평하는 것이 나의 몫은 아닐 것 같다.

연극평론가 안치운은 어느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연예술 영역의 통합, 즉 여럿이



Amongst these, the 'Bridge between Korea & Palestine'(representative, OH, Soo Yeon) and 'Asia Culture Network'(jointly represented by KIM, Nam Il, et al.) are the small groups that represent each of the case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literary magazine ASIA launched by Asia Culture Network, formed in 2006, is the literary window to Asia. To this day, ASIA has published a total of 9 issues, and operates an editing system that puts Korean and English together. As mentioned earlier, the percolation of such exchanges can also be witnessed by the numerous big and small exchange events that are being held every year, including the 2007 AALF. The literary exchange that started with Vietnam in the early 1990s spreads to various Asian nations, and as the experiences of the exchanges accumulate, translations of works and actual creative works come out. We could self-evaluate that the literary exchanges are co-evolving.

Asian art exchanges are also very active in other genres as well. Including Chinese modern art, symbolized by Beijing's 798 Art District, exchanges in visual art are showing a fascinating growth through large scale art fairs and other events. In particular, exchanges in the performing arts fields such as dance, ballet, theater, musical are gathering much attention as cultural products befitting this age of cultural industrialization. It doesn't seem to be up to me to classify and

comment on the realities and meanings of experiences of art exchanges that occur in other genres.

AHN, Chi Woon, a theater critic once wrote, "integration of performing arts fields, that is, many handling a single theme, or crossovers that remove boundaries between genres dismantle a single truth called the spring of truth, while denying the cause of showing the illusion of the truth, its sole possession. In other words, it is the reemergence of knowledge, and a theatrical operation to return the knowledge back to the stage of fiction." In a single wor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must specialize and cooperate to create a 'life without boundaries, theater of meeting that transcend boundaries' in plays. In the performing arts exchange reality which is ruled by the reckless market, such 'principles' are values that cannot be abolished.

### **Is Asia Art Network Possible**

In his book *Stumbling Toward Justice*, Lee HOINACKI says that the modern day's curse lies in 'disembodiment'. These words imply that we must be fundamentally cautious towards the modern day self-expansion principle of 'conquer and exploit'. I think that these words can be a topic that can be fully applied to the realities of Asian art exchanges that are showing active exchanges.

For example, in a seminar I participated

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거나 아예 장르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크로스오버와 같은 넘나들은 진리의 샘이라는 하나만의 진리를 해체하면서, 진리의 환영을 보여주는 원인, 그 전유물을 부정하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앎에 대한 재현이고 앎을 다시 허구의 무대로 되돌려 놓기 위한 연극화 작업이다.” 한마디로 말해 ‘경계가 없는 삶, 경계를 넘어서는 만남의 연극’을 위해 국내외 예술가들이 분업과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주하는 시장이 지배하는 공연예술의 교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원론’은 폐기처분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 ‘정복’의 만남이 아닌 ‘우정’의 만남으로

리 호이나키(Lee Hoinacki)는 <正義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라는 책에서 근대의 저주는 ‘뿌리 뽑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정복하고, 착취하라!’라는 근대적 자기 확장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나는 이 말이 활발한 교류활동을 보이는 아시아 예술교류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몇해 전에 참석한 어느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한 패널리 한국 NGO운동의 사례와 경험을 (동)아시아에 ‘수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아시아를 상상하려는 한국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적어도 대만 지식인 첸광싱(陳光興) 교수가 말하는 ‘하위[次]-제국’의 개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시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 및 예술인들과 교류할 때마다 때때로 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았

던가. AALF에 참여한 한 중국 작가의 발언을 들으며 마치 ‘중국대사’의 브리핑을 듣는 듯한 불편함을 느껴야 했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는 특히 이슬람권이나 동남아권과 예술 교류를 할 때는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자세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문화 접목을 실천해야 한다. 타문화와 교류할 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용기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겸손함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강한 것, 이기는 것, 돈 되는 것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예술 교류는 예술의 본령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21세기에 부활한 또다른 저주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거리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따위의 천박한 플래카드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 수준이 부쩍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고정된 이미지와 우리 안의 잘못된 무의식이다. 베트남을 새로운 ‘주식 투기장’과 ‘관광지’ 내지는 ‘처녀 수출국’으로 취급하는 고약한 우리네 현실을 보라.

나는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상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삶’을 만들어가려는 우정의 덕목이라고 믿는다. 이 우정의 가치를 소통하고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예술가들은 좋은 삶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인 동력이 ‘좋은 예술’임을 자각하게 될 터이다. 이를테면 나는 아직껏 아프가니스탄, 버마, 라오스, 스리랑카 시(詩)의 번역물 한 편 변변히 읽어보지 못했다. 지난해 가을 베트남 행사 때 만난, 소설 <끝없는 별판>을 쓴 여성작가 응웬옥뜨와 같은 ‘용감한 작가’들이 그들 나라에도 분명 있

a few years ago, I was quite shocked at seeing a panelist from a key civil organization in Korea speak in a way that implied that cases and experiences of NGO activities in Korea should be ‘exported’ to (East) Asia. I think that at least Korean intellectuals and artists who speculate about Asia must pay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ub-Empire’, spoken by the Taiwanese intellect, professor CHEN, Kuan Hsing(陳光興). Didn’t we collide seriously with the ethnocentrism of Chinese and Japanese intellectuals whenever we made exchanges with them? It brought back fresh memories of how uncomfortable it was to listen to a Chinese writer, speaking at AALF as if delivering a briefing from the ‘Chinese ambassador’.

In particular, in our artistic exchanges with the Islamic and the Southeast Asian circles, we must transition to an attitude of speaking less and listening more and apply a detailed cultural practice. In our exchanges with other cultures what more would we need than the courage to ask questions, and the humility to listen to others. Art exchanges that worship and pursue things that are strong, win, and make money are not the proper functions of art, and could even become a form of another cursed meeting revived in the 21st century. Just because those despicable placards such as ‘Marry A Vietnamese Girl’, have disappeared from the streets of our nation, one cannot say that our

cultural standards have been significantly heightened. The issue is the fixed images, and the wrong subconsciousness within ourselves. Observe our rotten reality in which we regard Vietnam as the new ‘market for stock speculation’, ‘tourism destination’, or even ‘girl exporting nation’.

When I imagine Asia art network, I believe what should be most required is the virtue of friendship to create ‘better lives’. We need to establish a tangible and an intangible cultural infrastructure to communicate and join through the value of this friendship. Through such a process, artists of Korea and Asia will come to realize for themselves that ‘fine art’ should be the fundamental engine in creating good lives and good societies. For example, I have yet to read a translation of a single poem written by poets in such countries as Afghanistan, Burma, Laos, Sri Lanka. Those countries must have ‘brave writers’ such as the female writer Nguyen Ngoc Tu, whom I met in the fall of last year at a Vietnam event, and had written the *Endless Field*. So it is clear that there needs to be more exchanges and joins for a sort of ‘cultural translation’, and not just translation of works.

Nevertheless, in coming up with Asia art network, we cannot say the ultimate goal has been achieved by relying completely on setting up a certain institutional system. Institutionalizing could destroy the spontaneity that is inherent in art. It is also a bit

을 터이다. 그러므로 작품 번역뿐만 아니라 일종의 ‘문화 번역’을 위한 교류와 연대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구상함에 있어 어떤 제도의 구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으리라. 제도화는 예술 고유의 자발성을 거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화라는 이름의 ‘분류’에 저항했을 때 만남과 협동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망각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점 또한 없지 않다. 네트워크에 관한 사유 또한 그러하다. 예술의 본령이란 니체가 말하듯이 ‘신나는 맹목’이 아니던가.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 역시 네트워크를 구상할 때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진다. “세계가 그토록 광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흩어지기 위함이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남 자체가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협동의 경험을 쌓는 동시에, 어떻게 이 시대의 독단론에 맞서 대항해야 할 것인지를 예술 교류라는 대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고영직** 문학평론가. 1968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민족문학연구소 연구원 및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희망의 예술>(공저), <천상병 평론>(편저) 등이 있다.

worrisome that the society seems to be forgetting the fact that meetings and cooperations lasted longer when we resisted ‘categorization’ in the name of institutionalization. This applies to the thought on network as well. As Nietzsche, the proper function of art, once said, isn’t it ‘happy blindness’? Goethe’s words also throw at us an issue that we should think about once in conceiving the network. “The reason why the world is so vast is so that we can all scatter in it.” In that aspect, while piling experiences of joyful cooperations to make the meetings themselves a ‘great event’, we must find a way to counter

and oppose the dogma of the times within the discussions of art exchanges.

**Ko, Young Jik** Literary critic.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Dongguk University. Represented the ‘Young Korean Writer’s Solidarity for Vietnam’. Currently active as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Literature Research Center, and a special advisor at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uthor of *Art Of Hope*(coauthor) and *CHEON, Sang Byeong Review*(compiled).

translated by **Song, Taek Sung**